△ FLOWERS-XXXIII ⓒBrigitte Lustenberger
–
△▷ FLOWERS-XIX ⓒBrigitte Lustenberger
–
▷ FLOWERS-V ⓒBrigitte Lustenberger

Brigitte Lustenberger 〈This Sense of Wonder〉

Christophe Guye Galerie는 지난 8월 25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브리짓트 루텐버거(Brigitte Lustenberger)의 개인전을 개최중이다. Brigitte Lustenberger는 스위스 작가로, 사진, 슬라이드 프로젝트, 필름과 비디오 작업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그는 Musee de l'Elysee의 올해의 호스트로 2007년 거대한 설치 작업으로 개인전을 가졌고, 2002년과 2013년 'the photo price of the canton Berne'에서 수상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작품 중, 부패, 폭력,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사진의 본성을 분석하고, 인생을 통찰하는 시각을 담은 신작을 전시한다. 작가는 사진 이미지에서 부재와 존재 사이의 상호작용과, 사진을 읽는 방식이 종종 공통된, 집단 기억에 의해 유발된다는 사실을 관찰한다.

부서진 나비나 딱정벌레에 더해서, 젊거나 나이든 사람의 얼굴이 카라바지오풍(Caravaggio : 17C 이탈리아 화가로 강렬한 명함대비가 특징) 배경 같이,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튀어나오며, 그 삶의 자국이 도드라진다.

그들의 거대한 존재감과 노려보는 듯한 눈길은 관객을 직접적으로 향해서, 마치 사진 속 그들이 대화를 요구하듯이 보인다. 살짝 시들거나, 혹은 대부분 시들은 꽃병의 꽃들, 박제한 동물들은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의 모티브를 상징한다. Dominique von Burg는 그의 작품에 대해 "쇠퇴와 부패의 이미지는 우리를 강한 매력과 공포로 매혹 시킨다"고 평했다.

전시일정 2016. 8. 25 – 10. 29

전시장소 Christophe Guye Galerie www.christopheguye.com